

PREVIEW

February, 2018 | by edito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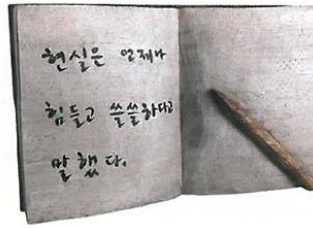
PREVIEW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
1.16~5.13 대구미술관



1960년대 말부터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1987년까지의 한국 전위예술의 전모를 다룬다. 당시 미술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고 전위예술활동을 한국현대미술의 잠재태로서 오늘날 당대미술까지를 관통하는 의미와 가치로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주류에 편승하기 거부하며 상대적으로 주변부에서 활동해온 입체, 개념예술, 해프닝, 미디어 등 실험적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전위예술과 한국전통 사유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서구미술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한국현대미술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시론을 탐구한다. <한국의 아방가르드미술:1960~1980년대의 정황>과 <한국행위미술 50년:1967~2017> 등 1, 2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22명의 작가가 참여해 62점 작품과 행위미술 50년을 기념하는 2,000여점의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실험적인 작업을 추구해 온 작가들의 작업을 조명하고 권위와 관습에 도전하는 실험적인 아방가르드미술과 아방가르드 미술 안에서 가장 혁신적이었던 행위미술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소개한다.

김성복
2.21~3.24 사바나미술관



한국의 수호 거인 금강역사상과 만화 주인공 아톰을 결합한 강인한 인간상을 유틸 있게 표현한 조각인 <바람이 불어도 가아한다>로 잘 알려진 김성복의 개인전 <도깨비의 꿈>. 도깨비 방망이, 해태와 같은 한국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해 해석적인 조각 작품을 선보여 왔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모티프로 한 다양한 입체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현대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10cm 안팎의 크기로 섬세하게 나무로 조각한 다이어리, 선물상자, 전화기, 지갑, 배, 시계, 안경, 구두와 같은 1000여 개의 일상의 물건을 전시장에 설치하거나 수 백 개의 도깨비 방망이를 쓰러지지 않는 오투기의 형태로 전시장에 설치해 크고 작은 꿈에 대한 염원을 담는다. 주로 화강석을 조각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돌뿐만 아니라 스테인레스 스틸, 나무, 풍선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즐겁고 유쾌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두 번째 풍경
1.23~3.25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서울이 내부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전시. 김기수 김삼근 노충현 원 안창홍 이창원 장종우 홍순명 황세준이 참여해 그럴듯한 서울의 풍경을 그려내고 그 뒤에 있는 진짜 풍경, 두 번째 풍경을 보여주고자 한다. 객세준 작

바이런킴
2.1~28 국제갤러리



인종적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바이런킴의 개인전 <Sky>. 2001년부터 개인의 기록에서 기인한 낮과 밤의 하늘을 그려낸 <일요일그림(Sunday Paintings)>과 무제의 밤하늘 시리즈를 선보여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수의 회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1.19~3.11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전. 이번 전시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대전현대미술의 전개와 발전을 주도하였던 「19751225」, 「르뽀뽀인회」, 「대전'78세대」, 「금강현대미술제」 등 4개 그룹의 활동을 살펴본다.

정강자: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
1.31~2.25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천안



평생 '한계의 극복'과 '해방'을 탐구한 작가 정강자의 첫 회고전을 서울과 천안에서 동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정강자 작가의 화업을 아우르는 60여 점의 회화와 조각,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가 전시된다.